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

② 전적 | 회화 | 지도 | 서예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민족은 장래가 밝습니다. 반면 역사를 불신하고 불평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문명을 탄생시키는 시련의 발자취이며, 문화재는 그곳에서 잉태된 유산입니다.

문화재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사람이 영원을 추구하는 오만과 겸손의 기록이며,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탁월한 언어입니다. 문화재는 지난 삶의 창조적 숨결과 지난 사회의 보편적 정신을 응변하고, 문명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서울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단군 이래 수천 년의 역사에서 늘 주목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호령하던 고구려, 서울에 처음 도읍을 정한 백제, 최초의 통일을 이룬 신라 등 명멸(明滅)을 거듭했던 지난 날의 세력들은 이곳 서울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유적에 이르기까지, 보통사람의 살림살이에서부터 세계문화유산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열정과 창조, 계승과 발전의 윤회를 고스란히 담아 많은 문화재를 남겼습니다. 서울은 궁궐·도성 등 나라를 상징하는 유적·유물과 전적·불경 등 동산문화재가 집중되어 있고, 도자기·회화·서예·의복 등 당대의 일류 문화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등록문화재,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된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

료·무형문화재에 관한 사진과 설명을 담고 있으며, 약 1,400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도시 경쟁력이요, 국가 경쟁력입니다. 또한 무한한 관광자원이며 문화자본입니다. 세계사를 이끌었던 강한 도시들과 나라들은 예외 없이 문화재 보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문화재의 예술적·과학적·실용적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더욱 힘쓰고, 늘 시민들 가까이 있는 우리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 교육과 향유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책이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데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데 보탬이 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세계 일류'의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이 인류문명과 세계문화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필과 발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모든 분들과 협조기관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 12. 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합시다

문화재는 과거 선인들의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생명력을 가진 결정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선인들이 남긴 문화재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과거의 바탕 위에 현재를 포용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면면이 이어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하고 편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의 문화재》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2003년에 간행한 《서울의 문화재》를 전면 증보 간행한 것입니다. 2003년 이후 문화재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지정문화재가 약 900여 점에서 1,400여 점으로 확대되었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대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수록 범위는 2011년 1월 현재 서울에 있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등록문화재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총망라하여 약 1,400점의 문화재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6권으로 나누어 제1권 건조물에서는 궁궐·관아, 단·묘·사, 성곽, 주거·누정, 선사유적, 능·원·묘, 유적지·명승, 석물, 근대건축, 제2권은 전적·회화·지도·서예, 제3권은 도자기·금석문·의복 및 장신구·무기·과학기기, 제4권은 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 제5권은

불교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불화와 불경, 제6권은 불교문화재 가운데 사찰건물·불상·불탑·부도·탑비·석등·당간지주·동종·사리유물·금고 및 석장·향로·목각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2003년에 발간한 《서울의 문화재》 편집 체제와 유형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2003년 이후 전적류와 지도류 및 불교문화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등록문화재가 새로 추가되면서 각 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권별 항목 분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3,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집필·교열·교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연구 인력이 참여하면서 2년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서울시민에게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와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관련 분야 연구·학술활동에도 좋은 길라잡이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울의 문화재》를 발간하는 데 참여해 주신 집필자·감수자 여러분, 특히 자료수집과 사진 촬영 그리고 마지막 교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 연구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 12. 1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신 형 식

- 《서울의 문화재》는 서울시민에게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교육자료와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문화재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서울의 문화재》는 2003년에 간행한 《서울의 문화재》를 전면 개정·증보하였다.
- 《서울의 문화재》는 2011년 1월 13일 현재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등록문화재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수록하였다.
- 《서울의 문화재》는 문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한 35개 항목을 전 6권의 책자로 나누어 편집·간행하였다.
제1권은 건조물편, 제2권은 전적·회화류, 제3권은 도자기·의복 등 유형문화재, 제4권은 무형·천연·민속·등록문화재, 제5권은 불화와 불경, 제6권은 사찰건물을 비롯한 기타 불교문화재를 수록하였다.
- 원고 내용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였으며, 별도로 구성된 교열위원회의 교열과 감수위원회의 감수를 거친 뒤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 원고 서술 내용은 정설이나 통설에 의하고 이설을 소개하며,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 기존의 발간물과 설명문에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문화재 명칭에 통일성이 없거나 잘못 표기된 것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았다.
- 문화재 관리나 정책수립 방향에 참고가 되며, 문화재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하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 원고 집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단에 문화재 명칭과 지정사항을 먼저 수록하고, 하단 본문에 문화재 설명을 하였다.
- 문장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과 국정교과서 표기원칙에 따랐다. 단,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유명사나 용어 등은 한자나 영문을 병기하였다.
- 연대 표기는 시대에 따라 왕력과 서기 연대를 병용하였으며, 왕력 연호 뒤에 서기 연대를 () 속에 병기하였다.
- 문화재 명칭 가운데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하나로 통일을 기하였다.
예) 청화(靑畵)·청화(靑華)→청화(靑華), 모란문(牡丹文)·모란문(牡丹紋)→모란문(牡丹紋)
- 본문에 인용된 저서나 논문·법규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 문헌·저서 제목
〈 〉 작품·논문·법률 제목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 ” 인용
‘ ’ 재인용·강조·표어·제목·명문·호칭 등 중요·동일사항의 나열
-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과 도면을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였다. 사진은 촬영사진과 협조·기증사진을 편집·수록하였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 **고 문** 이준희
- **위 원 장** 신형식
- **부위원장** 이월명
- **위 원** 고혜령, 김도형, 김영미, 김정희, 김홍남, 권태억, 노중국, 박선희, 박희현, 서중석, 손승철,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배용, 이상협, 이해은, 정옥자, 정재정, 조광, 최광식
- **행정간사** 김정호(문화재과장)
- **연구간사** 나각순
- **서 기** 한병연(문화재정책팀장)
- **전임연구원** 이상배, 박명호, 김우호, 김현숙, 김도연, 류상진

감수 및 집필위원

- **감 수** 김선풍(중앙대), 김홍남(이화여대), 문명대(동국대), 이상해(성균관대)
- **집 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순애(한성대, 전적 분야) 김건리(한국미술연구소, 회화 분야) 김미자(전 서울여대, 의복 분야) 김상엽(문화재청, 초상화 분야) 김성태(기전문화연구원, 무기·과학기기 분야)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 등록문화재 분야) 김정희(원광대, 불화 분야) 김형우(강화역사연구소, 사찰건물·탑비 분야) 송미경(경기도박물관, 의복 분야) 신대현(동국대, 불탑·부도·석등·당간지주 분야) 심효섭(가천박물관, 불화 분야) 양보경(성신여대, 지도 분야) 엄기표(단국대, 사찰·동종·불탑·사리유물 분야) 유영대(고려대, 무형문화재 음악 분야) 윤용이(명지대, 도자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난영(문화재연구소, 동종·사리유물·금고·향로 분야) 이상해(성균관대, 궁궐·관아·주거·누정 분야) 이상협(서울역사문화연구소, 유적지·기념물·능·원·묘·명승 분야) 이숙희(문화재청, 불상·목각탱 분야) 이영한(서울과학기술대, 근대건축 분야) 이완우(한국학중앙연구원, 서예·금석문 분야) 이재근(서울문화사학회, 민속·무형문화재 분야)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단·묘·사·성곽·선사유적·능·원·묘·유적지 분야) 임주훈(임업연구원, 천연기념물 분야) 천혜봉(전 성균관대, 불경 분야) 최공호(한국전통문화학교, 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최선일(문화재청, 불상 분야) 홍선표(이화여대, 회화 분야)
--	---

사진협조

간송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도서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문화재청, 백범김구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삼성출판박물관, 서강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아단문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한국미술박물관, 한국지수박물관, 허준박물관, 호림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

- 발 간 사 _ 서울특별시장
- 서 문 _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일러두기
- 부록 및 색인

1 건조물

- 1 궁궐·관아
- 2 단·묘·사
- 3 성곽
- 4 주거·누정
- 5 선사유적
- 6 능·원·묘
- 7 유적지·명승
- 8 석물
- 9 근대건축

2 전적·회화·지도·서예

- 1 전적
- 2 회화
- 3 지도
- 4 서예

3 도자기·금석문·의복 및 장신구 무기·과학기기

- 1 도자기
- 2 금석문
- 3 의복 및 장신구
- 4 무기
- 5 과학기기

4 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

- 1 무형문화재
- 2 천연기념물
- 3 민속문화재
- 4 등록문화재

5 불교문화재(1)

- 1 불화
- 2 불경

6 불교문화재(2)

- 1 사찰건물
- 2 불상
- 3 불탑
- 4 부도
- 5 탑비
- 6 석등
- 7 당간지주
- 8 동종
- 9 사리유물
- 10 금고 및 석장
- 11 향로
- 12 목각탱